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김형중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양국의 정치경제 비중을 반영해왔다.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연구 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 증가, 한류의 확산 등 특정 계기들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영어 통용과 대학 인프라와 같은 연구 환경 또한 말레이시아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핵심 연구자들 간 분절화된 연구그룹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말레이시아,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례연구

I. 서론

말레이시아는 언어, 종족, 종교 환경에서 비롯되는 자체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연구 주제로서 많은 유인을 가진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와 기타 소수 종족인 비말레이계 부미뿌트라(Bumiputra)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 다종족 사회, 이슬람, 이에 따른 사회화 과정은 인류학을 비롯한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를 포괄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해양도서부다. 이들은 소위 말레이 월드의 구성원으로 역사, 문화, 언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동남아시아의 대륙부와 해양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도 한다. 말레이시아가 갖는 다양성의 특징 자체가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특성과 현상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 2013년 하반기 국내학술대회(2013. 11. 22)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접경의 결과이자 국경 지역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점점인 것이다.¹

그러나 국내 지역연구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한국에서의 동남아 연구는 학문적 관심과는 별개로 한국과의 정치경제 관계의 비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그 비중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² 교역 측면에서 2011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에서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며, 한국의 대 아세안 총 수출 중 말레이시아 시장 비중은 8.7%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그친다. 2011년 말레이시아 총 수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9%에 그친다.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 방문객 중 한국인 비중은 1.1%, 한국 방문객 중 말레이시아 방문객의 비중은 1.6%에 머물고 있다. 2011년 한국 내 외국인 등록자 수를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인의 비중은 0.1%이며,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한국인 거주자는 1만 4,000여 명으로 이중 시민권자는 6명에 불과하다(한-아세안센터, 2012). 이에 반해 언어, 종교,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말레이시아 연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클러스터에서 말레이시아 연구가 인도네시아 연구에 편입되거나 병행되었던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초기 연구자 그룹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특히 어문학의 경우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어 또는 양 국가의 고전을 국가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연구 비중이 높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도네시아 전공자가 연구 분야를 확대하며 말레이시아 연구를 시작했고, 말레이시아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현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말레이시아를 국내에 소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국 간 시급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 말레이시아 연구의 정책성보다 학문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낳았다.

199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

¹ 인터뷰. 홍석준(목포대). 2013년 11월 2일. 서울.

² 이메일 인터뷰.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11월 8일.

내 해외여행의 급증에 따른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특정 사건과 계기들이 말레이시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들은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 증가, 한류의 확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지역연구로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석·박사),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 출판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학술지 논문 검색 시스템 RISS, 연구재단 웹사이트 등을 통한 관련 연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더불어 해외, 특히 말레이시아 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말라야대학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조사했다. 단, 본문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물을 선택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다수의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들의 학위 취득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연구자의 특성을 도출하고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의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I. 말레이시아 연구의 현황

1. 석사논문³

석사논문은 특성상 박사 연구자의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작성 시점의 주요 현안을 연구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고, 논문 수에 있어서도 학술지 게재 논문과 더불어 다수를 차지한다. 석사논문의 이러한 특성은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의 장기적 특성을 추적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국내 대학에 제출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석사논문은 안영호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한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다. 같은 해 이창웅의 석사논문(한양대학교)이 제출된 이후 1980년대까지 국내 대학에서 말레이

³ 석사학위 논문리스트는 부록을 참조.

시아 관련 주제의 석사논문 제출은 없었다. 이는 양국 간 관계를 반영한 학문적 수요의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0년 2월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70년대에도 뚜렷한 양자 관계의 진척 또는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 시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견제, 베트남 전쟁,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보안법 제정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주로 정치적 관점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말레이시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70년 2대 총리 압둘라자크(Abdul Razak Hussein)이 중립과 등거리 외교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의도했던 반공주의에 입각한 연대에 지장을 초래했다. 한국은 1970년대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총 수출에서의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5%를 넘지 못하는 등 양국은 경제 관계에서도 중요성을 확보하지 못했다.⁴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1960~70년대의 양국 관계에 비해 1980년대는 냉전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 이슈가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1980년대에 국내 대학에 제출된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총 5편으로 이 중 3편이 경제 분야의 논문이다. 이 중 2편(유석희, 1983; 이윤영, 1986)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했다. 이들 논문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의 성격이 짙은 연구들이다. 국내 말레이시아의 지역연구에서 현지 이슈에 대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은 홍석정이 1988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말레이시아 同盟黨 體制에 관한 研究: 말레이시아의 國民統合을 中心으로”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치, 사회, 문화 제 분야에 걸쳐 핵심 주제인 국민통합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정치학 논문 이상의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다.

1990년대에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등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특히 경제 관계에 진전을 보였다.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해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 시기 제출된 석사논문들은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하고 정치·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제 관련 논문이 5편 제출되었고 정치, 국제관

⁴ 해외협력위원회, “대 말레이시아 경제협력방향”, 1983. 7. 18. 대통령기록물, HA001775.

계 관련 논문 역시 5편 제출되었다. 이재현(1996), 김승희(1998), 박재림(1998)이 말레이시아 연구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신경제정책에 따른 종족갈등의 문제를 연구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연구에서의 핵심 주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논문 또한 말레이시아 연구 수요 변화를 반영한다. 1997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연구 수요를 창출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문(정인호, 1993; 박민수, 1997)이 작성되었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김정렬, 2000; 김현정, 2000)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사학위 논문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1~05년 사이 10편, 2006~10년 사이에 24편이 제출되었다. 양국이 경제위기에서 회복함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2000년대 11편의 논문이 경제, 무역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접근을 한 석사논문도 9편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 9편의 논문 중 4편이 선교 전략에 관한 것으로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 연구 수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문학에 대한 연구도 1975년 이후 다시 등장했다. 이 중 말레이어에 대한 논문 2편, 말레이시아 내 영어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 2편이 각각 석사논문으로 제출되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적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약 3년간 17편의 석사논문이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작성됨에 따라 역대 기간별 논문 추이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했다. 경제, 사회·문화, 이공계의 논문이 각각 5, 6, 5편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주제의 특성은 한국 내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 관련 2편, 에너지 산업, 할랄 산업, 팜유 산업, 주석 폐광지역에 대한 조사 등이 각각 1편씩 작성되었는데, 이는 국내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이공계, 특히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와 논문이 3편이 작성되었다. 이 시기 석사학위 논문의 특성은 작성자의 말레이시아 현지 경험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이리나, 2011; 김보미, 2012; 전소영, 2012)의 경우 말라야대학 건축학과와의 교류사업 참여를 계기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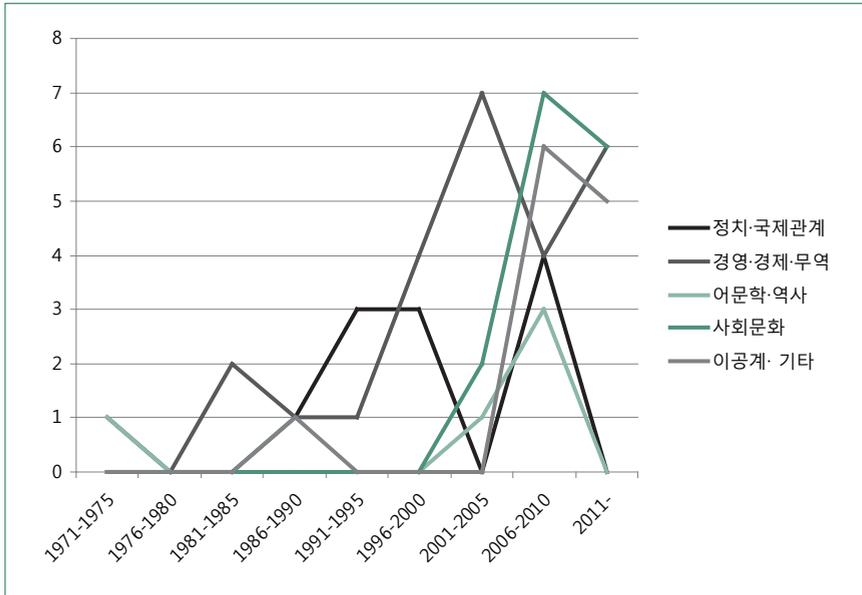


그림 1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작성된 5개 주요 분야의 국내 석사학위 논문 추이

교수와 현지 교수가 연계한 프로젝트에 합류함으로써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인류학 분야의 정민영(2012)과 이윤정(2012)도 말레이시아 현지조사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활용해 작성된 논문이다.

국내 석사학위로 제출된 말레이시아 논문들은 말레이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발전 속에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제별로는 정치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핵심 과제인 종족 간 갈등과 신경제정책에 대한 집중이 특징적이다. 경제 분야는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었다.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시도됐다. 단, 이 중 선교와 관련된 논문의 비중이 높았던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최근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의 특징은 소속 대학교의 교환 프로그램, 학회 등의 현지조사 지원비 등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 석사학위가 박사학위와의 연계성을 갖고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 추이를 보인다. 특히 어문학 관련 말레이시아어에 대한 논문(인도네시아어와의 비교 논문 포함)은 안영호(1975년) 이후 국내 석사논문이 단

2편에 그쳤다. 이들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안영호와 이재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2000년 중반 이후 관련 논문의 양적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공계 연구의 높은 비중은 이들 학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학위 연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 중 다수는 말레이시아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강경석이 자위(Jawi)문자 발전에 대한 석사논문을 제출한 데 이어 1989년 고영훈이 문학, 1992년 이재권이 문법 분야에서 각각 석사논문을 작성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1992년 홍석정이 동남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를, 이경찬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관계에 대해 각각 논문을 제출했으며, 1996년에는 김금현이 말레이문화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다. 이후 2005년 김형중, 2008년 박종현, 2011년 박영진 등이 지역연구 관련 논문을 제출했다. 2012년 조민성의 논문은 말레이시아 어문학 연구의 재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박사논문

국내 말레이시아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은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등 해외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어문학 분야의 초기 전문 연구자들은 말레이시아(말라야대학, University of Malay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초의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1986년 강경석이 자위 문자에 관한 연구 “Analisis Gaya Bahasa Melayu dan Sistem Tulisan Jawi Berdasarkan Beberapa Manuskrip ‘Sejarah Melayu’[‘말라유 역사(스자라 말라유)’를 중심으로 한 자위 표기체제와 말레이어 형태 분석]”로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에 제출

표 1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작성된 5개 주요 분야의 국내 박사학위 논문 추이

	정치·국제관계	경상	어문학·역사	사회문화	이공계·기타	계
1996~2000	1			1		2
2001~2005	1		1			2
2006~2010	1	1				2
2011~		1				1

한 논문이다. 고영훈은 “Pemikiran Pramoedya Ananta Toer Dalam Novel-novel Mutakhirnya(현대 소설 속의 Pramoedya Ananta Toer의 사상)”로 말라야대학 말레이학부에 1993년 논문을 제출했다. 문학 분야에서는 1995년 정영림의 박사논문 “Novel-novel Awal di Semenanjung Melayu dan Korea(반도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초기 소설들)”이 말레이대학에 제출되었다. 언어학(음성학) 분야에서는 1998년 말레이대학에서 제출한 전태현의 “Perbandingan Onomatopoea Dalam Bahasa Melayu dan Bahasa Korea(한국어와 말레이어의 성유법 비교)”가 있었다. 1999년 이재권의 말레이어 구문론에 대한 “Kasus dan Pindahan sin Taksis Dalam Bahasa Melayu(말레이어 통사론 전이와 격)”가 제출되어 어문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 그룹을 형성한다.

말레이시아를 연구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 중 지역학 분야는 어문학 분야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나타나 안영호의 2004년 논문 “Laras Bahasa: Suatu Analisis Tajuk-tajuk Berita Dalam Berita Harian Tahun 1996~1997(브라따하리안 신문 1996~1997년에 나타난 뉴스 주제 분석)”, 정순희의 2005년 논문 “Citra Sosial Dalam Cereka Keris Mas(커리스 마스 작품 속에 나타난 사회상)”가 제출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김금현이 “Konflik Nilai Sosial di Kalangan Pekerja Melayu Dalam Syarikat Multinasional: Satu Kajian kes di Sebuah Syarikat Korea di Senawang(다국적 기업 내 말레이 노동자의 사회가치 충돌: 스나왕에 위치한 한국기업의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 말레이시아 내 한국기업에서의 문화충돌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이외의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호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1993년 오명석이 호주 모나쉬대학에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Other Malay Peasants [microform]: the Making of Rubber Small Holders in Johor, Malaysia”을 시작으로,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황인원이 호주국립대학에 2001년 제출한 논문 “Changing Conflict Configurations and Regime Maintenance in Malaysian Politics: From Consociational Bargaining to Mahthir’s Dominance”와 이재현의 2005년 머독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UMNO Fac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Malaysian

National Identity”가 그것이다. 그간의 말레이시아 연구 논문이 정치 부문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룬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두 논문의 등장은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부문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황인원의 논문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라는 대안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방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어 연구방법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⁵ 이재현의 논문은 말레이 민족주의 정당 내의 파벌 투쟁에서 나타난 말레이 민족주의 담론을 시계열적인 비교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말레이 엘리트들에 의한 말레이 민족주의의 담론화 및 조작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민족주의 연구에 기여했다.⁶

미국에서는 1989년 오하이오대학 사학과에 소병국이 “From Parochial to National Outlook: Malay Society in Transition, 1920~1948”이란 논문을 제출했고, 학위는 역사학, 인류학 분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이 있었다. 이밖에 뉴욕주립대학에 1995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이환성의 “Migration in Malaysia: A Microeconomic Model Based on the Malaysian Family Life Survey”가 있다. 인류학 분야에서는 2010년 버지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서연의 논문 “Reclaiming the English Language in Postcolonial Malaysia: Ethnicity, Class, and the Nostalgia for Global Citizenship”이 있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관련 석사학위 논문이 국내에서 작성되었던 반면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다. 한국 대학에서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작성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은 1997년 홍석준이 서울대 인류학부에 제출한 “말레이시아 농촌의 이슬람화와 사회변동: 끝판판의 말레이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다. 국제관계 관련 논문으로는 김수일이 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한 “말레이시아 外交政策의 基調變化와 對韓

⁵ 황인원의 학위논문은 싱가포르 ISEAS에서 출판되면서 국내 동남아 지역연구자들 중에서 최초로 영어권에서 출판된 학위논문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의 퇴임 2주 전에 전격 출판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는 등 국가가 아닌 연구 대상 지역인 현지에서 연구의 적실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지금도 말레이시아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 사이에서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메일 인터뷰. 황인원, 2013년 11월 4일.

⁶ 이메일 인터뷰.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11월 8일.

政策”이 있다. 원순구가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한 “말레이시아 公共部門의 役割과 財政支出의 經濟成長 效果에 관한 研究”는 국내 경제학 분야 말레이시아 관련 최초의 박사논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논문이 비교 연구 또는 사례로 말레이시아를 다루는 데 반해 원순구의 논문은 말레이시아 지역연구로서의 경제학 논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002년에는 김상이 “동남아 국가의 華人정책과 華人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대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미곡상 비교연구”를 서강대학교에 제출했고, 2006년에는 이정찬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 “마하티르 통치기 대미 외교정책과 말레이시아-미국관계”를 제출했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희주가 2010년 경기대학교에 제출한 “방한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추구편의 세분화 연구”와 최활식이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한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경제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가 있다.⁷ 박사학위 논문은 어문학 분야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역연구 분야는 국내와 미국에서 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제한된 논문 편수로 인해 연구주제에서의 유의미한 동향을 유추하기 힘들었다.

3.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은 국내 학술지 논문 검색 시스템 RISS를 이용해 제목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한 후 기행기, 브리프, 저자가 없는 편집팀의 정보, 외국인의 저술을 제외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5년 단위로 시기별로 학술지 게재 추이를 살폈으며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5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했다.

초기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생 독립국으로의 개괄적인 소개(이영선, 1964; 노용희, 1966)가 등장한 이래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1968년 이후에 나타났다. 이후 1990

⁷ 현재 진행 중인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말라야대학 말라야학부에 재학 중인 조민성의 “Analisis Unsur Budaya Dalam Teks Terjemahan Kreatif Korea-Melayu”(가제)가 있다. 이는 한-말레이시아 번역학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박종현은 말라야대학 미디어학에서, 강명숙은 어문학부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년까지는 말레이시아 관련 학술지 논문은 연평균 1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구 논문들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개괄 또는 특정 정책에 대한 포괄적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으로는 어문학 분야의 안영호(1976), 전태현(1986), 정치학 분야에서 양승윤(1988)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말레이시아 관련 본격적인 지역연구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시점은 1990년대부터다. 1991~95년 시기에는 이전 5년간(1986~90년)의 3건에서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정치와 국제관계 관련 논문이 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문화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말레이의 정체성과 이슬람이 사회문화 부문의 주요 주제로 제기되었다. 소병국(1994)의 논문은 말레이시아 연구의 역사학 논문으로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단, 어문학의 경우 말레이시아어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또는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1995~2000년 시기는 심화된 양국 관계 속에 말레이시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경제위기라는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들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이 크게 증가했다. 이전 5년간의 기간에 비해 총 논문 편수는 23편에서 50편으로 증가했으며, 질적으로도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홍석준, 오명석, 소병국)의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로 말레이시아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경제 관련 논문이 20편으로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국내 석사학위 논문의 추이와 함께한다. 즉, 1990년대 들어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상호의존, 경제발전과 위기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박변순, 2000; 이성량, 2000; 장원창, 200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특정 산업에 대한 소개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문들도 게재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문화 부문이 정치, 국제관계 연구보다 많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주로 이슬람 부흥운동(소병국, 1997; 1999), 이슬람화에 따른 영향(홍석준, 2000), 전통관습(홍석준, 1999), 화인 사회(오명석, 1999) 등을 다루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소병국이 입헌군주주의(2002), 술탄제와 헌법(2004)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치 부문에서는 마하티르체제에 대한 연구와 동방 정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마하티르의 정치과제에 대한 박은홍(2000), 전황수(2000), 이경찬(2000)의 논문이 있었고, 동방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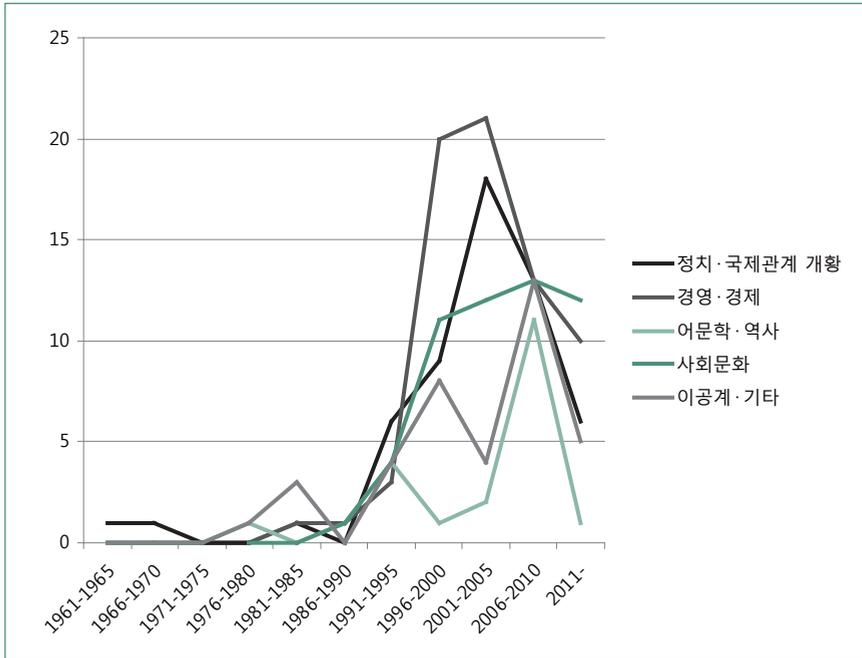


그림 2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추이

책의 결정 요인 분석(이경찬 1998a; 1998b)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200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는 질적·양적으로 발전했다. 2001~05년 기간 동안 분야별로는 정치 관련 논문이 18편, 경제 분야 21편, 사회문화 12편, 어문학·역사 2편, 이공계 및 기타 4편 순으로 발표되었다. 경제위기의 영향과 극복 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 경제협력의 다각화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는 말레이시아 연구에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원순구, 2005),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김동엽, 2005), 인류학적 접근(오명석, 2001)도 이루어졌다. 정치 분야의 논문은 1998년 이른바 안와르 사건을 계기로 한 지배 엘리트 간의 분열과 정치 변동에 대한 연구들(황인원, 2003a; 2003b)이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 정치 변동에 대한 비교연구 사례(정상화, 2001; 김홍구, 2003a; 2003b; 이경찬, 2004)들도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 외교 정책 결정 요인 분석(김수일, 2001a)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사회 분야 논문들의 주제는 이슬람 부흥 운동

(홍석준, 2001b), 돼지고기 소비와 종족관계(오명석, 2004), 방언과 정체성(홍석준, 2001a),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이경찬, 2002a; 2002b), 도시 농촌에 대한 필리핀과의 비교 연구(박승우, 2003), 노동운동(이재현, 2004) 등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공계 분야에서는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 중 3편(조세환, 2004; 권용우, 2004; 최경렬·강선종, 2005)이 신행정수도 뿌뜨라자야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의 행정수도 논의로 인해 말레이시아 신행정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일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사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사례도 나타났다(이성량, 2001).

2006~10년 기간에도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논문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분야별로 정치·국제관계 13편, 경제 분야 13편, 사회문화 13편, 어문학·역사 11편, 이공계와 기타 13편의 논문이 각각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인 이재현과 황인원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집권당과 관련된 연구(이재현, 2006; 2008)와 다종족 정당 체제 관련 연구(황인원, 2009)가 있었으며, 2008년 총선에 대한 분석 연구(이재현·황인원, 2008)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분석(이장희, 2009)은 시의성을 반영한 연구물이다. 경제 분야에서의 연구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각 산업 분야(물시장, 관광, 정보화 협력, 녹색 정보화 정책, IT, 이슬람금융, AFTA 체결에 따른 무역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비교연구에 기반한 논문이 증가했다(정영규, 2009; 나희량, 2010; 변영학, 2009; 신영진, 2010; 장원창, 2008; 정영규, 2010). 이들 비교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들은 각 분과 학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들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어문학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 언어 정책(송경숙, 2006; 전태현, 2009),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비교연구(박향상, 2008), 번역학 연구(정영림, 2007)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밖에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말레이시아 영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011년 이후 최근의 말레이시아 관련 논문의 학술지 게재도 증가 추세에 있어, 정치 분야 6편, 경제 분야 10편, 사회문화 12편, 이공계 5편, 어문학 1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보궐선거(황인원, 2011), 의회정치(황인원,

2012), 종족 갈등(김종업·최종석, 2011)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경제 분야의 논문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나희량, 2011; 김홍배·이재홍, 2012; 김홍배·김분태, 2012; 원순구, 2011).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종교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슬람적 소비와 할랄인증제(오명석, 2012), 샤머니즘(홍석준, 2011b)에 관한 논문이 그 예다. 사회발전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는데 불평등과 빈곤(이양호, 2013), 여성주의(이수인, 2013) 등을 다루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말레이시아 내 한류, 한인사회, 조기유학 등 말레이시아에 투영된 한국 문제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는 점이다(김지훈, 2013; 홍석준·성정현, 2011; 박행모, 2011; 조금주·장원호, 2013). 이공계에서는 주택 및 주거 환경에 대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주서령·전소영, 2012; 오혜경, 2011; 우동선 외, 2012).

학술지 기준으로는 이공계 저널을 제외한 인문 사회 지역연구 분야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는 『동남아시아연구』(22편), 『국제지역연구』(21편), 『동남아연구』(16편), 『동아연구』(4편), 『아세아연구』(4편), 『사회과학연구』(2편), 『아시아지역연구』(2편) 등이다. 이 중 주요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저널인 『동남아시아연구』와 『동남아연구』를 비교할 때 양 저널 간 연구자 교차 게재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두 학술지에 모두 게재한 연구자는 단 2명이며, 『동남아시아연구』에만 게재한 연구자는 6명, 『동남아시아연구』에만 게재한 경우는 12명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에 국한할 경우 『동남아연구』는 3명, 『동남아시아연구』는 5명의 연구자가 각각 한 저널에만 게재했다.

학술지 논문 기준으로 핵심 말레이시아 연구자 그룹의 형성이 가시화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어문학 연구자와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공계 및 비전공자의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말레이시아 연구자로서 정체성 형성은 미지수다.

4. 단행본

말레이시아 연구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 등과 비교할 때 단행본의 발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말레이시아 관련 단행본은 학술서, 보고서, 체험기, 번역서를

표 2 말레이시아 관련 단행본 발간 추이(학술서, 보고서, 체험기, 번역서 포함)

기간	1990년 이전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계
건수	5	5	8	23	21	19	81

포함해 8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학술서는 번역서를 포함해 7권에 그친다. 국내 저자의 말레이시아 관련 학술 단행본은 『마하티르의 도전: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와 아시아적 가치』(이선향, 2000), 『한-말레이시아 관계론』(김수일, 2001b), 『불교 균주와 술탄: 태국과 말레이시아 왕권의 역사』(소병국·조흥국, 2004),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보고』(성정현·홍석준, 2013), 『말레이시아』(소병국 외, 1998), 『말레이시아』(양승윤 외, 2010)가 있다. 번역서로는 『말레이시아』(다독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편저, 1998)가 있고, 이외에 체험기로서 『오래된 진리: 말레이시아 원주민 세노이족과 함께 한 10년』(로버트 울프, 2007)이 있다. 박종현은 말레이시아 현지 체험을 바탕으로 『이슬람 경제의 새로운 메카 말레이시아』(2007)와 『Malaysia: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2011)를 저술했다.

보고서와 체험기가 단행본 총 81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출간된 것이다. 1995년 이전 발간 단행본은 10권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관련 단행본은 2000년대 이후 정책 보고서를 위주로 작성 발간되었다. 보고서 발간은 기관별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건, 한국관광공사 4건, 외교부 3건,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각 2건씩 발간했다.

단행본 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학문적 수요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방증한다.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들의 단행본 발간에 대한 기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 단행본의 대부분이 정책 보고서에 집중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과 대응에서 당장의 필요에 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역사, 문화, 정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서의 발간 또는 외국 학술서의 번역 작업도 미미한 수준이며, 체험기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의 연구 수요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제한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학문적 또는 교양 차원의 말레이시아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연구의 궁극적인 수요의 원천은 대중이다. 대중에게 말레이시아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행본 발간이며, 따라서 단행본 발간이 적극 고려되어야 필요가 있다.⁸

III. 말레이시아 연구의 특성

말레이시아 핵심 연구자 그룹은 말레이시아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말레이시아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어문학 분야와 비어문학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초기 말레이시아 연구자의 형성은 초기 어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마인어학과가 설치되면서 어문학 연구자들의 수요가 발생했으며, 어문학 연구자들 중 다수가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했다. 이는 두 언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어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에서 6명의 연구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전체 말레이시아 어문학 전문 연구자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높은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두 개의 언어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들 말레이시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어문학 연구자들의 이후 연구논문들은 말레이시아어에 집중하기보다 비교연구 또는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학에 집중한다.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어문학 관련 연구 실적이 미진한 원인이다. 어문학 분야의 연구자 그룹에서 신진 연구자의 충원이 더딘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어 또는 말레이시아 문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분야의 석·박사 취득을 위해 유학을 한 경우도 2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학과 설립 초기의 전문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특정 시점 이후에 감소한 현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⁸ 인터뷰, 박종현, 2013년 10월 26일.

지역연구 분야의 연구자 그룹은 어문학 분야와 비교할 때 출신 학부와 학위 취득 국가별 분포가 보다 다양하다. 어문학 분야를 제외한 지역연구 분야의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들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는 말레이시아(2명), 한국(4명), 호주(3명), 미국(2명) 등이다.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를 심화시키며 실질적인 말레이시아 연구자 중 핵심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수가 이미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핵심 연구 그룹의 형성에 기여했다. 어문학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어 연구와 중첩되는 데 반해 이들 연구자들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주도했다. 학문 분과로는 정치학과 인류학, 역사학으로 지역연구의 주요 학문 분야를 포함한다.

2000년대 증가한 타 지역(이공계 전공) 전공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 증가 또한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추세는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말레이시아 연구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비전공자의 말레이시아 연구는 국내의 실용적인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또는 양국 관계에서 주요 사건 또는 산업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특성상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사논문의 경우 각 연구자의 연구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제들이 당시 시의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석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수요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는 1997~98년 경제위기, 한국기업의 투자 증대, 한류 확산, 이슬람금융 등이 있다. 경제위기의 경우 원인, 대응, 영향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례와 비교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투자, 교역 관계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논문과 더불어 관광, 자원, 금융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말레이시아 체험자의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거나 전공 지역이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말레이시아 경험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 업적을 내놓고 있다.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가 말레이아대학 건축학과와 대규모 정기적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계기로 현지 건축에 대한 연구를 심화한 사례(주서령)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환학생을 경험한 후 진학하거나 동참했던 대학원생들이 말레이시아 건

축 관련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여 관련 분야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 말레이시아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이공계의 논문은 현지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기반 없이 단기적 '실험실'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경희대학교 연구자 그룹의 형성은 현지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현지 경험과 사회문화적 이해가 함께 시도된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지역연구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는 연구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었다(Rou and Kim, 2010; 박준석·성채민, 2012; 나영은, 2007 외). 이밖에도 안식년 등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며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비전공 연구자(교수)들의 말레이시아에서 안식년을 갖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의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비전공자가 말레이시아 현지 경험을 계기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개별 연구자의 연구 열정 이외에도 말레이시아가 갖는 연구 환경의 장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영어 사용과 영어 문헌의 보편화로 인해 언어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대학생,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중앙정부 관료 등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은 어문학 분야를 제외한 핵심 연구자 그룹의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현지조사에서 높은 영어 활용도와 영어 문헌 가용성은 연구 환경으로서 말레이시아가 갖는 장점이다.

연구 환경과 연구 성과와의 관계는 말레이시아 연구에서의 지역적 편중에서도 나타난다. 영어 사용이 보편화된 반도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지리적 고립성과 다양한 언어 환경 속에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바와 사라왁 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사바와 사라왁을 주제로 한 논문이 없었다는 사실은 지역적 편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연구 환경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사바·사라왁이 갖는 인류학적 연구 가치와 정치 변동에서의 역할 등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 연구비 수혜 연도별 수혜 현황(1994~2013. 1)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건수	1	1	0	0	0	1	2	2	5	3	0	2	2	3	1	4	5	4	3	1	40

말레이시아 연구물들의 주제를 살펴볼 때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일상적 관계에서 오는 양자 관계의 비중을 반영한 일상적 연구 수요라기보다는 말레이시아 또는 한국에서의 특정 사건과 실리적 이해관계와 같은 계기를 통해 연구 수요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외환위기의 사례다. 말레이시아는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과 함께 경제위기를 겪었던 바, 이와 관련된 비교적 관점과 목적으로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대응 과정 연구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이후 이슬람금융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이에 관련한 말레이시아 사례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안와르 사건을 통한 정치 변동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말레이시아의 적극적 역할과 한국의 참여는 정치·국제관계 분야에서의 말레이시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아세안 내에서의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역주의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정치, 외교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류의 확산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한류 관련 이해관계는 말레이시아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에 수요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요인들은 말레이시아 연구에서 몇몇 연구주제로의 집중을 낳고 있다. 특정 시기에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후에는 후속적 연구 작업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말레이시아 연구 수요 창출에 있어 연구지원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 연구 중 연구재단, 각 대학교, 민간재단 등의 연구비 지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과제는 학술지 발표로 이어져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역연구에서 현지조사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연구비의 수혜 여부는 말레이시아 연구의 질적·양적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재단 웹사이트에서 한국 연구 업적 검색 기능을 통해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 관련 연구의 연구비 수혜는 1994년부터 2013년 1월 총 44건에 달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비를 수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 연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양적으로 증가했다거나 감소했다고 하기에는 전체 건수도 적고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문화 부문 연구과제가 11건, 정치·국제관계 및 말레이시아 일반이 10건으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분야별로 경영·경제 분야 7건, 어문학·역사 6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공계 분야의 연구과제도 6건을 기록했다. 지원 기관은 연구재단(학진)이 12건, 외교부 등의 기타 정부 관련 기관이 8건으로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는 한국동남아학회가 4건, 포스코청암재단이 2건과 각 대학별 자체 연구과제에 선정된 것이다. 이들 연구과제 중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포함)가 수혜한 경우는 16건이다. 나머지는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학문적 또는 정책적 수요에 의해 사례연구 또는 비교 연구로서 수혜한 연구과제들이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은 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⁹

IV. 결론

말레이시아 연구는 “이슬람과 이슬람화, 종족 및 민족문제, 종교와 다종족 사회의 관계, 현대사회에서 다문화 사회 진전과 말레이시아 다종족 사회의 경험 등에 관한 연구는 말레이시아 지역연구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연구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역연구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및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제적 연구로서 지역연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¹⁰ 말레이시아가 갖는 지역연구 대상으로서의 높은 학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미한 양국 간 정치·경제적 비중은 초기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문적으로는 어문학 분야에 중점을 둔 대학 학과 설립에 따른 학문적 수요가 초기 말레이시아 연구 기반을 닦는 데

⁹ 석·박사과정생에게 각각 2년과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연구자 양성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학사업이 도입된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5명이 선정되어 유학을 마쳤거나 유학중에 있다.

¹⁰ 인터뷰. 홍석준(목포대), 2013년 11월 2일, 서울.

기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와의 유사성으로 말레이시아 연구와 인도네시아 연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실제 인도네시아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말레이시아 연구는 비어문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등장하면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연구는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연구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에 낯선 말레이시아에 대한 소개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했다. 말레이시아 연구는 점증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수요에 의해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경제 관계의 발전, 경제위기, 이슬람금융, 다양한 산업 진출에 따른 사전 조사 필요성, 한류의 확대, 민간 부문의 교류 확대, 정치 변동 등은 직·간접적으로 말레이시아 연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말레이시아 원로학자이자 정치인인 사이드 후신 알리는 “외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단기간의 체류를 통한 연구를 확실한 연구 결과물로 주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Ali, 2008: 10).” 이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자로서 갖는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는 차선적 대안 또한 현지 경험과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말레이시아 연구자는 소수의 핵심 연구자 그룹과 비전공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핵심 연구자 그룹의 특징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학하거나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심도 있는 현지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방법론적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 최근 비전공자 그룹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의 체험 또는 현지 프로그램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갖는 영어 통용과 대학 인프라 등은 말레이시아 연구의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지역 연구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연구자 간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핵심 연구자들 간 분리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최근 이공계 등을 포함한 연구 분야의 확대 속에 광의의 말레이시아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전문 연구자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 초기 말레이시아 유학을 통한 전문 연구자로의 성장이라는 패턴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청암재단의 지원 사업과 같은 체계적 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원사업이 석사과정 위주의 수혜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석사과정의 특성상 전문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석·박사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 풀 확대와 심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내 말레이시아 연구의 수요는 궁극적으로 대중의 말레이시아 인식에서부터 비롯됨을 상기할 때 대중서 발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3년 12월 15일 | 심사일: 2013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권용우. 2004. "The New Capital Cities of Pakistan and Malaysia." 『한국지리교육학회』 38권 1호, 25-39.
- 김동엽. 2005.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 경제위기와 마하티르를 넘어 신자유주의 국가로." 『동아연구』 48호, 100-138.
- 김수일. 2001a. "말레이시아 외교정책결정 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5권 2호, 101-123.
- _____. 2001b. 『한·말레이시아관계론』.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종업·최종석. 2011. "말레이시아 종족간의 갈등 원인과 현황 연구: 신경제정책(The New Economic Policy, NEP)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2권 1호, 39-63.
- 김지훈. 2013. "욕망, 어머니됨, 어머니노릇하기로 풀어낸 말레이시아의 기러기 가족." 『동남아시아연구』 23권 2호, 323-328.
- 김홍구. 2003a.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 비교연구." 『외대논집』 27호, 163-182.
- _____. 2003b. "동남아의 정치체제와 정치변동: 말레이시아와 태국 비교." 『아시아지역연구』 6호, 92-118.
- 김홍배·강상훈. 2012. "Volatility Transmission between the Sharia Stock and Sukuk GII Markets in Malaysia."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회』, 1-17.
- 김홍배·김분태. 2012. "말레이시아 주식시장과 수쿠크 간 변동성 이전."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권 2호, 129-149.

- 김홍배 · 이재홍, 2012. “말레이시아 금융시장개방의 득과 실.” 『유통정보학회지』 15권 5호, 23-39.
- 나영은, 2007.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말라야 대학교(UM)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교육 방안.” 『언어와 문화』 3권 3호, 127-143.
- 나희량,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권 1호, 143-180.
- _____.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권 2호, 135-172.
- 노용희, 1966. “외국의 지방 행정시찰에서 본대로 느낀 대로: 지방대의제적 자치행정.” 『지방행정』 15호, 43-51.
- 다독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편, 소병국 편역, 1998. 『말레이시아사』. 서울: 오름.
- 로버트 울프 지, 김정한 옮김, 2007. 『오래된 진리: 말레이시아 원주민 세노이족과 함께한 10년』. 서울: 흥익출판사.
- 박변순, 2000.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내실 없는 일탈.” 『동남아시아연구』 10권 1호, 95-129.
- 박준석 · 성채민, 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의 의미와 기능의 대조 연구.” 『한국어교육』 23권 2호, 143-170.
- 박승우, 2003.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의 국가와 농업/농촌 부문간의 관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시장주의 모델간 비교분석의 일환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13권 1호, 263-306.
- _____. 2006. “국가, 계급, 민족-그 역동적 상호작용: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비교연구.” 『동아연구』 50호, 184-233.”
- 박은홍, 2000. “마하티르 노선과 말레이시아의 도전.” 『역사비평』 52호, 129-144.
- 박한상, 2008.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모음의 길이.” 『언어학』 52호, 103-116.
- 박행모, 2011. “말레이시아 KL지역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 인식 분석.” 『실과교육연구』 17권 3호, 205-222.
- 변영학, 2009. “동남아시아 금융레짐의 정치경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중앙은행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3호, 151-180.
- 성정현 · 홍석준,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보고』. 한울아카데미 : 한울.
- 소병국, 1997.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1970~1997): 주요 닥와(Dakwah) 집단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6호, 138-169.

- _____. 1999. “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 말레이인의 사회·문화 생활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연구』 3권 1호, 83-101.
- _____. 1994. “탈식민시대 동남아의 사회 문화적 변동: 말레이시아 정치, 경제, 사회변동의 지성사적 연구(1948~1993).” 『민족과 문화』 2호, 5-45.
- 소병국·조흥국. 2004. 『불교 군주와 술탄: 태국과 말레이시아 왕권의 역사』. 서울: 전통과현대.
- 소병국 외. 1998. 『말레이시아: 비전 2020을 지향하는 동방정책의 나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송영숙. 2006.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및 영어 특징.” 『영어학』 6권 4호, 937-959.
- 신영진. 2010. “미래사회의 녹색정보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사례비교 및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4권 4호, 27-55.
- 안병준. 1986. “The Politics of Cooptation and Compromise in Malaysia.” 『아세아연구』 29권 1호, 1-29.
- 안영호. 1976.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統一綴字法에 關한 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9권 1호, 223-246.
- 양승윤. 1976. “말레이시아의 異質的인 民族文化에 對한 考察.” 『이문논집』 7권 1호, 91-105.
- 양승윤 외. 2010. 『말레이시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오명석. 1999. “말레이시아의 화인사회(1945~1969): 독립과 마화의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7권 1호, 245-269.
- _____. 2001. “이슬람 경제의 시각에서 본 말레이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적 해결 방안.” 『국제지역연구』 10권 4호, 57-79.
- _____. 2004. “말레이시아에서의 돼지고기 소비와 종족관계.” 『동남아시아연구』 14권 2호, 1-38.
- _____. 2012. “이슬람적 소비의 현대적 변용과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제: 음식, 이슬람 법, 과학, 시장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45권 3호, 3-63.
- 오혜경. 2011. “말레이시아 호텔 로비에 나타난 공간구성요소의 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권 5호, 188-196.
- 우동선 외. 2012. “말레이시아 페낭 섬 조지 타운에서 주거 유형의 다양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권 9호, 188-196.
- 원순구. 2005. “경제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5권 1호, 141-170.

- _____. 2011. “동남아시아 이슬람금융의 발전구도와 제도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1권 2호, 267-306.
- 이경찬. 1998a.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결정요인 분석.” 『아시아지역 연구』 1호, 150-183.
- _____. 1998b.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결정요인 분석.” 『동남아시아 연구』 6권 1호, 75-104.
- _____. 2001.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적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1권 1호, 53-85.
- _____. 2002a. “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특성과 파급영향.” 『동남아시아연구』 12권 2호, 133-167.
- _____. 2002b. “국제노동력 이동과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국태국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1-104.
- _____. 2004.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Transition in Indonesia and Malaysia.” 『21세기 정치학회보』 14권 2호, 279-299.
- 이선향. 2000. 『마하티르의 도전: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와 아시아적 가치』. 서울: 학문과 사상사.
- 이성량. 2000.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국제지역연구』 4권 2호, 95-115.
- _____. 200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제도.” 『동남아시아연구』 11권 1호, 269-285.
- 이수인. 2013.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여성주의 운동 참여와 정체성 형성.” 『한국 여성학』 29권 1호, 37-83.
- 이양호. 2013.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동남아시아연구』 23권 1호, 127-167.
- 이영선. 1964. “동남아 신생국 말레이시아.” 『새가정』 11권 3호, 93-95.
- 이장희. 2009. “패드라 브랑카(싱가포르)/플라우 바투 푸티로(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평석.” 『고려법학』 52호, 363-390.
- 이재현. 2004. “말레이시아 노동운동의 현황; 노조, 제도, 종족의 제약 그리고 이주노동.” 『노동사회』 95호, 82-93.
- _____. 2006. “1990년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와 1998년 UMNO 파벌투쟁.” 『동남아시아연구』 16권 2호, 115-144.
- _____. 2008. “말레이시아의 집권당의 지배적 정당 성격과 그 유지 요인.”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1610-193.
- 이재현 · 황인원. 2008.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 분석과 정치적 함의.” 『신아세아』 15권 4호, 64-92.

- 장원창. 2000. “자본통제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태국, 말레이시아 사례 연구.” 『금융조사보고서』 99권 4호, 1-60.
- _____. 2008. “국제경제: 아시아 신흥금융시장의 자본통제 효과분석: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403-419.
- 전태현. 1986.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동방』 5권 1호, 38-52.
- _____. 2009.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3권 1호, 151-172.
- 전황수. 2000.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정치갈등 극복의 리더십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61-81.
- 정상화. 2001. “동남아시아 선거의 정치경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세계지역연구논집』 17호, 143-163.
- 정영규.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ourism Industries between Malaysia and Korea.” 『문화산업연구』 9권 2호, 139-164.
- _____. 2010. “이슬람국가의 금융산업에 관한 연구: UAE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권 3호, 185-217.
- 정영림. 2007.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홍부·놀부 이야기」 연구: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18호, 119-136.
- 조금주·장원호. 2013. “말레이시아 청소년과 성인들의 한류 의식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9호, 92-101.
- 조세환. 2004. “이슬람 전통조경요소의 현대적 계승 고찰-말레이시아 신수도 푸트라자야 사례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권 4호, 1-8.
- 주서령·전소영. 2012. “말레이시아 공공부문 공동주택 계획의 특성 및 시대별 추이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2권 1호, 207-245.
- 최경렬·강선중. 2005. “말레이시아 Petronas Tower 프로젝트.” 『한국건축시공학회지』 5권 1호, 41-45.
- 홍석준. 1993.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2권 4호, 101-122.
- _____. 1999.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종교: 현대 말레이시아의 전통관습(adat)과 이슬람: 이슬람화에 따른 말레이 상속관행 및 혼인과 이혼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권 1호, 135-153.
- _____. 2000. “현대 말레이시아 농촌의 이슬람화와 사회변동.” 『국제지역연구』 4권 1호, 127-174.
- _____. 2001a. “말레이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슬람.” 『민주주의와 인권』 1권

- 2호, 205-246.
- _____. 2001b. “현대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문화적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11권 1호, 1-27.
- _____. 2011a. “현대 말레이시아에서의 방언 사용과 문화적 정체성: 클란탄 말레이 방언 (Kelantanese Malay dialect)의 사례.” 『사회언어학』 9권 2호, 209-235.
- _____. 2011b. “말레이시아 샴머니즘 연구의 동향.” 『한국무속학』 22호, 65-87.
- 홍석준 · 성정현. 2011.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21권1호, 1-48.
- 한-아세안센터. 2012. 『2012 한-아세안 통계집』.
- 황인원. 2003a.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치위기와 체제변동의 동향.” 『동남아시아연구』 13권 2호. 187-222.
- _____. 2003b.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마하티르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마하티르의 정치적 유산과 말레이시아 민주화 전망” 『기억과 전망』 5호, 114-134.
- _____. 2009. “말레이시아 다종족 정당정치와 정치발전적 함의.” 『동아연구』 57호, 315-352.
- _____. 2011. “말레이시아 선거정치와 정치변동: 2008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정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329-364.
- _____. 2012.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의회정치의 발전: 지속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22권 2호, 201-238.
- Ali, Syed Hussin. 2008. *The Malays: Their Problems and Future*. Kuala Lumpur: The Other Press.
- Rou, Seung Yoan and Keum Hyun Kim. 2010.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역할과 중요성-말레이시아 대학에서의 사례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권 1호, 117-144.

〈부록 1〉 국내 대학 말레이시아 관련 석사학위 취득 현황

이름	연도	석사학위 논문 제목	학위수여기관
안영호	1975	말레이시아語와 인도네시아語 比較研究: 發展過程에 있어서 外勢의 影響으로 因한 差異點考察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
이창웅	1975	韓國의 對 Malaysia經濟協力 및 輸出擴大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유석희	1983	韓國의 對 말레이시아 經濟協力 擴大方案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오원근	1984	韓國 말레이시아 經濟協力擴大方案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이윤영	1986	말레이시아 新經濟政策에 關한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홍석정	1988	말레이시아同盟黨體制에 關한 研究: 말레이시아의 國民統合을 中心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이흥연	1990	말레이시아 사라왁 北部海域에 對한 物理檢層 解析과 地層評價	漢陽大學校
조현승	1991	말레이시아 聯邦으로부터 싱가포르의 分離獨立에 關한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정인호	1993	말레이시아의 長期發展 計劃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김대홍	1993	말레이시아 政治發展과 政黨體系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校
문승현	1994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兩國의 對決政策(1962~1966)에 關한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이재현	1996	말레이시아의 국가와 종족갈등의 해결: 신경제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민수	1997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對한 국가중심적 접근법과 그 적용 가능성: 말레이시아 公業화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승희	1998	말레이시아의 종족갈등과 신경제정책(1971~199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재림	1998	말레이시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과 새로운 딜레마: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정렬	2000	말레이시아 資本統制가 利子率 變動性에 미친 影響에 關한 實證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김진오	2000	(The)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Malaysia's Manufacturing Industry.	고려대학교
김현정	2000	Long-run Impact of Malaysia's Capital Control in Comparison with Capital Liberalization of Korea	Korea University

이름	연도	석사학위 논문 제목	학위수여기관
임승욱	2001	외환위기에 따른 대응정책에 관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 연구	韓南大學校 大學院
박정신	2001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혁신수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말레이, 중국, 인도, 3개 종족 비교	고려대학교
오동훈	2001	말레이시아 新經濟 政策과 種族葛藤의 解決: 말레이인과 華僑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장만희	2001	자본통제 정책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의 경우	韓國外國語大學校
김지언	2002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과 사회변동: 중간계층의 성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용진	2003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종족범주화와 문화재현에 관한 연구: 박물관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지인	2004	(A)Study of Ethnic Chinese Business in Malaysia: Focusing on the Patronage of Malay Politicians	韓國外國語大學校 International Area Studies
김성용	2005	한국 중소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 사례연구: 카타딘아시아(주) 현지판매 법인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世界經營大學院
유재기	200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영어의 형성과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진용	2006	말레이시아 선교전략: 인종과 종교 갈등을 통한 틈새 접근 방법론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이규호	2006	청년실업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인적자본의 기획 그리고 글로벌 교육산업에 대한 연구: 말레이시아 유학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태희	200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 대한 한국선교단체들의 교회개척전략 비교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김병렬	2006	다종교 문화권 속에서의 선교 전략: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조태영	2006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로마자 표기법 차이에 관한 고찰: 자위(Jawi) 문자 표기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박정숙	2006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의 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장민귀	2006	Changes of Educational Policy in Malaysia Focusing on Communalism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름	연도	석사학위 논문 제목	학위수여기관
정미영	2007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 형성 교육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병호	2007	한국기업의 對 말레이시아 投資擴大方案에 관한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經營大學院
박종현	2007	(The)Search for the Enhancement of Bilateral Cooperation of Malaysia and Singapore through the ASEAN-Way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수김	2008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바틱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와 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오명진	2009	세포 배양을 통한 말레이시아 열대식물 추출물의 미백 효능 평가	동국대학교
진미연	2009	Dealing with the Financial Crisis 1997 in Malaysia and South Korea: (The)Roles of the Govern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유미	2009	(The) General Election in 2008: A Watershed in the Political History of Malaysia?	韓國外國語大學校
송준수	2010	말레이시아 화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 실태 조사 연구: 쿠알라룸푸르 거주 화인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최윤경	2010	말레이시아 신도시의 주거단지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Petaling Jaya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영은	2010	말레이시아 전통주택 입면요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선영	2010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 분석: 다중족선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선미	2010	말레이시아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토론 담화표지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달만	2010	이슬람 선교 전략 연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박수진	2010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시스템의 개혁: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의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김경원	2011	효과적인 말레이시아 선교전략: 동, 서 말레이시아 선교전략 비교연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리나	2011	말레이시아 신도시 주거단지 계획지침 및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사임다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황영균	2011	이슬람 banking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조건과 전략: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이름	연도	석사학위 논문 제목	학위수여기관
김동호	2011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김효진	2012	금융자유화의 정치경제: 2000년대 말레이시아의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소영	2012	말레이시아 공동주택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Kuala Lumpur와 Selangor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보미	2012	말레이시아 식민토속주택의 형성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쿠알라룸푸르 캄퐁baru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민영	2012	이슬람과 일부다처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이관(Global Ikhwan)'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초우	2012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석유와 천연 가스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김민주	2012	동남아시아 한국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말레이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about the Curriculum of the Korean School in Southeast Asia: Focused on the Implications in Malaysia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재석	2012	농업고도화의 정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 고도화 비교분석=Politics of Agricultural Upgrad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Malaysian and Indonesian Palm Oil Industry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이철	2012	국제시장에서의 할랄(Halal)산업의 가치와 한국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김효선	2012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종교적 의미: 말레이시아 1980년대와 2000년대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윤정	2012	(The) Performance of Islamic Banks in Malaysia: a Comparative Study of Full Fledged Banks and Conventional Subsidiaries, 2006-2010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김민주	2012	동남아시아 한국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말레이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경원	2013	말레이시아 선교 전략 연구: 종족별 교회개척 및 단계별 선교사역을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이하나	2013	Comparison of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Tree Species Planted on the Abandoned Tin Mine Land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Abstract

Tracking the Academic Trends in Malaysian Studies in Korea

Hyung-Jong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ast researches in Malaysian studies and recent academic interests by Korean scholars in Korea have reflected the shifting relationship between Malaysia and Korea, political or economic. Quantitatively speaking, Malaysian studies in Korea has developed drastically since the 1990's, when all sorts of researches began to appear in the forms of PhD dissertations, MA theses, journal articles, books, etc. Such an expansion of Malaysian studies in Korea was stimulated by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increased interests in Islamic banking, or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The research environment of Malaysia reputed as being appropriate for learning English and for having strong university infrastructures, etc. has also been a positive factor in this expansion. To provid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laysian studi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academic networks should be newly arranged accordingly to their specific areas of interest. Moreover, it would also be important to allow new researchers of various areas to network with each other.

Keywords | Malaysia, Korea, Southeast Asia, area studies, case studies